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6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부활절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증인됩니다.
5.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40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4/24(수) 8시 Zoom 기도회(빌립보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은 한아름 2층에서 고향속 집사님께서 대접하십니다.
8.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남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744.00)

십 일 조: 박동희 박종남,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감 사: 박동희 박종남,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속, 김반석, 박병기,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부활절 헌금):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16호 2024년 4월 2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민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4:19-24 다 같이
- 설 교 Sermon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 번 주 섬 김 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민연 권사	조병우 목사	고향숙 집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유금자 권사	김반석 목사	이승택 집사	박종님 전도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2절) 고 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려 애쓴다면,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돌아가신 사랑하는 예수님. 그 선물을 늘 감사하며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John15:13) Those were the words Christ spoke to His disciples after their last meal together. He told His friends to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v.12) and that the greatest love is to lay down one’s life for another. This is exactly what Jesus did the next day, when He went to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 – as only He could. We may never be called to follow the heroism. But as we remain in God’s love, we can serve others sacrificially, laying down our own plans and desires as we seek to share the story of His great love.

‘Dear Jesus, You died to give me life everlasting. May I live with gratitude for this gift and share it with those you put in my path.’